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확진에 따른

담 화 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시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된데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노고가 많은 모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AI 유입 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지도하는 등 총력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2일 공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황실을 가동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농가의 산란계 등 가금류 18만 7천수,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안에 있는 4개 농가의 37만 2천수의 가금류 전량에 대한 긴급 살처분 작업에 348명(용역회사 220명, 상주시 공무원 128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발생농장 인근 10km이내 8개 농장은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해 전 농가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농가별 소독용 생석회를 지원하여 소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동통제초소 3개소(낙동, 공성, 외남)를 설치하여 12월 3일 18시부터 운영중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가금류는 91농가에 640만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육계는 79농가에 563만 수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 보호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7대, 광역방제기 2대를 동원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관계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이 사태를 막아낼 계획이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소규모 가금류 농장의 가금을 예방적으로 수매, 도태를 실시하여 축산농가 보호, 피해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AI의 발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가금류 농가 피해예방과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가금류 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꼭 방문해야 할 때에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축산차량은 농장과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코로나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말연시 축산·농업단체 모임 및 각종행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모든 가금류 농장은 개방된 장소의 방사사육과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여 주시고, AI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상주시 축산과(☎537-7471~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국내외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발생상황, 국내 철새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사태를 무사히 이겨내기 위하여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피해를 본 농가들이 빠른 시일내에 실의를 딛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 4

상주시장 강 영 석